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⁹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¹⁰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¹¹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¹²네가 받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¹³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¹⁴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4:9-14)

높은 위치에 있다가 저 아래 바닥으로 추락, 하루 아침에 비참한 신분이 된 케이스들이 몇 건 생각나는데요, 먼저 떠오르는 건 저 유명한 요

셉 이야기이고, 또 하나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다만 요셉의 경우는 단지 가나안 족장 야곱의 사랑 받던 아들이었을 뿐으로 그닥 높은 위치라 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학대 받는 백성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갈대상자 에피소드로 명실공히 당대 최고의 국가 애굽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면, 그가 장성한 후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며, 이 일로 그는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바로의 낫을 피해 도주, 광야를 가로질러 미디안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러한 성경 출애굽기 1, 2장 모세의 출생 배경과는 달리 영화 ‘십계’ (十誡, 1956)에서는 이 모든 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재구성, 영화상으로는 왕의 기품을 타고나 백성을 품을 줄 아는 지혜로운 모세를 바로는 후계자로까지 생각하던 차, 마침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모세가 결국 히브리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붙잡혀 바로의 궁에 서게 되며, 이 자리에서 바로에게 자기는 바로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민

창4:9-14, AC.370-391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죽을 해방시키겠다 말하여 그만 그 자리에서 다음 왕권은 바로의 친자 람세스에게 넘어가고, 모세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선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책과 기록에서 모세의 이름을 없애라’

‘모든 단검표와 첩탐 기념비에서도 없애라’

‘모세의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라’

그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를 결박하는데 사용한 막대기가 그의 지팡이가 되고, 그의 생모가 남긴 포대기가 그의 겹옷이 되며, 그에게는 하루치 물과 식량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영광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합니다.

높은 신분이었던 사람이 당하는 무장해제가 이렇게 장엄하고 리얼하게 묘사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²⁴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²⁵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²⁶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²⁷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11:24-27)

그러고보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비유도 이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굳이 비유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부와 명예, 신분과 지위 등을 누리다가 스스로 포기, 빈털터리가 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말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들은 영광의 태고교회의 일원이었으나 태고교회에 맞지 않는 이상한 신앙으로 발전, 결국 주님을 비롯, 교회의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더니 끝내 지옥과 같은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 첫 인류, 첫 교회가 경험한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입니다.

지난 주에 다룬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본문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태고교회를 뜻하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교회가 낳는 두 자녀인 신앙과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를 뜻합니다. 태고교회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사랑 그 자체인 교회였고, 그래서 신앙도 사랑에서,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체어리티도 실천하는 교회였지만 차차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사랑 따로, 신앙 따로여도 뭐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 그룹이었지요. 그냥 주님께 관한 신성한 지식들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열심히 추구하되 정작 그런 지식을 생활 속에 실천, 타인을 사랑하는 일은 마뜩찮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였던 태고교회 사람들은 아예 신앙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변종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어쨌든 사랑과 신앙의 결합, 신앙과 체어리티의 결합으로 늘 천적 상태 가운데 있었던 태고교회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 부어지는, 주님의 신비

한 은사인 퍼셉션(perception, 천국에 충만한 영적 통찰력)이 언제나 천국 천사들처럼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태고교회에 그만 안 좋은 변화, 퇴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태고교회는 사과 같은 과일의 맨 안쪽 씨, 종자라면, 가인과 같은 그룹들은 그 바깥쪽인 과육을 거쳐 맨바깥인 껍질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한 가운데 가장 환한 백열 전구가 태고교회, 아담과 하와였다면, 가인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흐릿해지는 빛이었다 할까요? 네,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걸 사랑 안에서 이해하는 아담과 하와, 부모 교회와는 달리 사랑을 쪼개어 사랑 따로, 신앙 따로를 추구하는 가인과 같은 자녀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진실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와 같은 스킴(schism, 宗派)이나 이단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곧 자기 사랑, 자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그 속뜻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읽는 이유 및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가인의 신앙을 따라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4:9-14, AC.370-391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과 속뜻을 절별로 묶어 쌍으로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어떤 디테이트(*dictate*, 주님과 그 사람 간 어떤 특별한 영적 커뮤니케이션), 곧 체어리티에 대한 디테이트가 있자 그들은 체어리티에 대한 평소 그들의 생각, 곧 자신들은 체어리티를 하찮게 여기며, 체어리티를 섬겨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체어리티와 관련된 모든 걸 일체 거부한다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체를 드러냅니다.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태고교회의 두 자녀 중 맏이인 신앙이 아우인 체어리티에게 폭행을 가했음(8절)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에서 분리한 신앙인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유죄!’, ‘유죄!’ 고발하는 것입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의 신앙, 곧 사랑 따로, 신앙 따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선인 체어리티를 폭행, 사라지게 하였고, 그 결과 스스로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12절, 네가 받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태고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랑과 신앙을 서로 분리하는 그런 걸 교리화하여 그걸로 무슨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세우는 가인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과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의 선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 가운데 있으면 어떤 내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태고교회에서 일어난 가인의 무리들은 결국 교회의 모든 진리로부터 분리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반한 신앙의 모든 선으로부터도 분리되고, 그 결과 참된 선과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어 결국 모든 악과 거짓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각 절이 왜 이런 속뜻을 갖게 되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풀게 되면 무척 길어질 것 같아 아래 제 블로그 관련 링크를 알려드리오니 찾아와 보시고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베덴보리는 주님의 풀이를 그저 덕테이션만 했습니다. 주님의 풀이는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입니다. 말씀의 원저자이신 주님은 말씀에 사용된 모든 단어, 용어, 표현들을

통해 왜 그때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를 저자 직강으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최대한 쉽게 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 블로그 번역글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9절, <https://bygrace.kr/1059>
- 10절, <https://bygrace.kr/1061>
- 11절, <https://bygrace.kr/1062>
- 12절, <https://bygrace.kr/1063>
- 13절, <https://bygrace.kr/1064>
- 14절, <https://bygrace.kr/1065>

참고로, 오늘 본문 14절 맨끝부분 표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바로 이 표현에서 저는 그동안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 아직은 이 지구에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 이제 아벨은 죽고 없어 오직 세 사람뿐인데 갑자기 가인의 이 말,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 나타난 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첫부분, 아브라함 등장 전까지를 걸 글자의 뜻으로만 읽을 때 직면하게 되는 충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서술에는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창4:9-14, AC.370-391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서술 형식인 창세기 첫부분은 고대인들이 즐겼던 스토리텔링 형식임을 기억하고 이 부분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 창조과학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한 걸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설명을 읽으면서 뭔가 살짝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라도 창조과학회 웹사이트를 방문, 해당 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은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태고교회 안에서 사랑 따로, 신앙 따로의 입장을 고집, 그걸 교리화 하여 일어났던 이단 종파를 일컫는 이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신앙의 결합, 신앙과 체어리티의 결합으로만 주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자기에게 합당한 그릇이라야 편안해 하며, 충만히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랑 따로, 신앙 따로, 즉 신앙 따로, 체어리티 따로의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스스로 주님을 등지는 것이고, 주님의 선과

진리에 대하여 비록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악과 거짓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 아주아주 위험한 상태, 지옥의 악령들에게 휘둘리며 풍비박산 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체어리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따로, 체어리티 따로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체어리티를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보호 안에, 그리고 향후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약속 받습니다.

체어리티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사용하는 사람들... 저는 유튜브에서 소위 ‘**사회적 실험**’이라는 채널들을 즐겨봅니다. 어떤 특정 상황, 가령 임신부가 큰 캐리어를 끌고 육교를 건널 때, 한쪽팔을 다친 고등학생이 뭘 들고 가다 넘어졌을 때, 어떤 여자가 애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맞고 있을 때, 어린 아이가 길 건널목에서 ‘저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좀 건너게 해주세요’ 할 때, 아빠를 잃은 아이가 한강 둔치 공원에서 엄마에게 아빠처럼 목마를 태워달라고 할 때, 어떤 외국 여자가 단지 피부 빛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을 때, 역시 어떤 외국인이 지갑을 푹 떨어뜨리고도 모르고 가거나 백팩이 활짝 열린 것도 모르고 가거나 할 때, 군복을 입은 군인, 혹은 젊은이가 한강 대교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등등, 이럴 때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멀리서, 물론 필요하다면 군과 경찰, 소방서 등에 사전 협조를 구하며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는 영상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꽤 좋은 영상들만 추린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열이면 열, 이런 영상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의외로 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흔쾌히 그들을 돕습니다. 진심으로 돕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돕던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그리고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체어리티의 실천, 체어리티의 삶, 생활이란 무슨 그리 복잡하고 어려우며, 심오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평생 고아들을 돌보며,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무거운 체어리티의 삶도 있겠지만 저런 평범

한 체어리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 그런지 전에는 가끔 월세 조차 못내 1층 계시판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공지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물론 저희 역시 쉽지는 않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준비, 봉투에 담아 무명으로 관리사무소에 두고오곤 했습니다. 나라가 좋아졌는지 언제부터는 그런 공지가 이젠 더 이상 붙지 않는군요 ^^

네, 하여튼 체어리티를 실천할 수 있는 순간에 그걸 외면하고 지나치는 사람은 지옥에 노출되는, 아주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정말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그와 주님과 유대와 결합이 끊어지고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개인적으로 일대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과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어리티의 삶을 산다는 건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고백인 것이지요. 다음은 주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창4:9-14, AC.370-391

‘신앙 따로,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따로가 되면’

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를 나타내리라 (요14:21)

다음은 오늘 본문 14절 주석 중 맨
마지막 글인 391번 글 내용입니다.

...내세(來世, *the other life*)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태를 보면 분명히 악
과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체어리티를 박탈한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돌며, 이리저
리 도망다닙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
든지, 가령 어느 무리든지 그들은
이들이 그저 다가오기만 할 뿐인데
도 이들의 캐릭터를 즉시 지각합니
다. 그런 것이 내세에 존재하기 때
문인데, 그들은 이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까
지 하는 적대감을 품고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합니다. 악한 영
들은 서로를 잔인하게 대하며 학대
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
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만족감
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거짓 자체가 이런 것의 원인이
라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
해 무엇을 원하든 자기한테로 돌아
오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그 안에

거짓에 대한 형벌이 들어 있으며,
악도 그 안에 악에 대한 형벌이 들
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들 안에 이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오늘 본문 14절은 사실
은 이런 지옥 악한 영들의 상태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 싶습니다.

어제 이 부분을 번역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이 떠올라 많은 분과 공유했
습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원했
던 사람은 사후에 그 행복을 돌려받
으며, 생전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원했던 사람은 사후에 그 불행을 돌
려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디 나중에 우리가 원한
만큼, 우리가 빈 만큼, 아니 그 이상
으로 풍성하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
시는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07-03(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